

# ‘나주 1박2득’ 보름 만에 2천명 몰렸다...체류형 관광 가속화

숙박 관광객 인센티브 지급 ‘성과’  
동행 인원 따라 최대 15만원 지원  
여행 하루 전 신청 가능 편의 개선  
1억2천만원 관광 소비 효과 기대

나주시가 ‘2026 나주방문의 해’를 맞아 추진 중인 숙박 관광객 인센티브 사업 ‘나주 1박 2득’이 시행 초기부터 높은 참여를 보이며 체류형 관광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17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1일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한 가운데 지난 15일 기준으로 접수 인원이 2천명을 넘었으며 현재까지 집계된 지원금 규모는 5천만원이다.

‘나주 1박 2득’은 나주를 잠시 들르는 도시가 아닌 머무는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표 체류 유도 사업으로 나주에서 1박 이상 숙박하고 관광지 1곳 이상을 방문한 관외 개별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동행 인원 기준에 따라 최대 15만원의 인센티

브가 지원되며 지급 방식은 나주사랑상품권 또는 나주물포인트 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황포돛배 할인권과 빛가람전망대 모노레일 이용권을 함께 제공해 숙박과 관광, 소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체류형 관광이 실제 지역 소비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4 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관광 숙박여행 1인 평균 지출액은 6만 1천원으로 3월13일 기준 접수 인원 2천명에 이를 적용하면 약 1억2천만원 규모의 직접 관광 소비

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현재 집계된 지원금 5천만원의 약 25배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숙박과 음식점, 카페, 체험, 쇼핑 등 지역 상권 전반으로 소비가 확산하는 체류형 관광 정책의 효과를 보여준다.

나주시는 더 많은 관광객이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도 개선했다.

기존 여행 3일 전까지 가능했던 사전 신청 기준을 여행 1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보다 많은 관광객이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나주시는 ‘나주 1박 2득’을 통해 단순 방문 중심 관광 흐름을 체류와 소비 중심 구조로 전환하고 방문의 해 주요 관광 콘텐츠와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효과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나주 1박 2득은 관광객이 실제로 나주에서 머물고 먹고 즐기며 소비하도록 설계한 체류형 관광 정책”이라며 “신청 기간 개선으로 이용 편의를 높인 만큼 더 많은 관광객이 정책을 활용하도록 하고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방문 확대에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종환 기자

## 완도군, 조림 사업 13억 투입 ‘탄소흡수원’ 확충

총 102ha 규모 맞춤형 숲 조성

완도군은 17일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2026년도 조림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군은 총 사업비 13억원을 투입해 경제림 47ha, 재해 방지 10ha, 지역 특화 45ha 등 총 102ha 규모의 맞춤형 조림을 조성할 방침이다.

한계 농지와 수변 구역 등 활용도가 낮은 유휴 토지까지 범위를 넓혀 탄소흡수원을 대폭 확충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득 창출까지 견인할 계획이다.

식재 수종은 지역 입지 여건에 최적화되고 활용 가치가 높은 황칠나무와 편백, 완도호랑가시, 붉가시나무 등을 심는다.

또한 조림 후 숲 가꾸기와 침엽굴 제거 등을 철저히 병행해 조림목의 안정적인 생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박차를 가한다.

이를 통해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발맞추는 것은 물론,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공익적 가치 제고에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완도군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2026 조림사업’을 실시한다. 사진은 숲 경관 복원 사업 대상지인 고금면 청용리 산 경관. <완도군 제공>

해낼 전망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체계적인 산림 정책을 통해

숲을 건강하게 가꾸고 산림자원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 진도아리랑수산물시장 제1호 ‘골목형상점가’ 선정

92곳 온누리상품권 가맹 지원

지역 소비 촉진 전환 역할 기대

진도군은 17일 “침체된 골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쌍정 일대를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첫 지정의 혜택을 받는 구역은 진도아리랑수산물시장 일대에 자리 잡은 92개 점포다.

골목형상점가는 2천㎡ 이내 소상공인 점포 밀집 구역을 지자체가 직접 지정해 전통시장과 유사한 혜택을 부여하는 맞춤형 지원 제도다.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 조직은 뜻을 모아 신청서와 구역도 등 필요 서류를 갖춰 군에 접수하면 되며, 꼼꼼한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지정 요건에 대폭 완화된 만큼 골목형상점가 발굴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고물가로 시름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상생의 지역경제 구조를 단단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세권 기자

그동안 전통시장별상 상점가로 인정받기 어려워 각종 지원에서 소외됐던 음식점 밀집 구역 등이 구제되면서, 골목 상권 활성화에 확실한 청신호를 켰다.

상인들이 체감할 가장 큰 변화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다.

상품권을 사용하는 관광객과 소비자 역시 선 할인과 환급 등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낼 전망이다.

## “강진 보은산에서 몸과 마음 치유하세요”

郡,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

우울증 예방·스트레스 관리 등

17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확대를 위해 이달부터 11월까지 보은산 힐링센터에서 ‘생애주기별 보은산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생애주기별 ‘보은산 마음건강 프로그램’은 ▲청년층의 ‘마음챙김’ ▲중년층의 ‘마음충전’ ▲노년층의 ‘마음정돈’ 등 각 연령대별 특성에 맞춤 차별화된 심리 지원 힐링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의 우울증 예방, 스트레스 관리, 정서안정 등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평소 소홀하기 쉬운 마음건강 관리를 위해 정신건강검사 및 교육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원예치유 ▲다도체험 ▲아로마테라피 ▲신체활동(요가 또는 근력운동) 등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민들의 정서회복을 돕고 삶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강진 보은산 힐링센터에서 열린 중년여성 마음충전 힐링 프로그램 운영 모습. <강진군 제공>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까지 상시 개방되고 있다.

마음건강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상설서비스로 ▲정신건강 검사(불안 및 우울선별검사·스트레스 측정) ▲신체회복 건강서비스(안마·발마사지) ▲VR(가상현실) 활용 두뇌훈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참가자는 지난해 기준 1천800명에 달하며 주민들의 호응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프로그램

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은산 마음건강팀(061-430-5302)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마음건강은 신체 건강만큼이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며 “보은산의 수려한 자연 속에서 심리적 안정과 활력을 되찾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정서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 신안군 ‘2026 농산물 가공창업 교육’ 추진

내달 1일까지 총 6회 운영

신안군은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가공창업 역량 강화에 나섰다.

17일 신안군에 따르면 ‘2026년 농산물 가공창업 과정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농산물 가공에 관심 있는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직접 탐 채취 생산한 농산물로 차별화된 가공 제품을 개발하며, 이번 교육을 든든한 디딤돌 삼아 실제 창업까지 성공적으로도 약하게 된다.

세부 교육 과정은 가공창업 필수 절차부터 식

품위생 및 안전관리,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AI 활용 마케팅 전략까지 폭넓게 구성됐다.

단순 이론에 그치지 않고 농산물가공센터의 최신 장비를 활용한 실습을 철저히 병행해 예비 창업농들의 실무 역량 제고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특히 30여명의 농업인이 동거 공동 운영 중인 ‘맛있섬영농조합법인’의 현장 노하우와 가공 시설을 직접 경험하며 실감 감각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신안군 관계자는 “체계적인 가공기술 습득과 차별화된 제품 개발이 지역 농가 소득 증대의 마중물이 될 것임을 입증하겠다”며 “앞으로도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안=양홍 기자



최근 함평군·사회단체장과 지역 농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분석실’ 개소식을 개최했다. <함평군 제공>

## 함평군, 농산물 안전성·품질 확보 나선다

농기센터, 과학영농분석실 개소

잔류농약·중금속 정밀·신속 분석

함평군은 과학 기반 영농 지원과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마련한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분석실이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17일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열린 개소식에는 기관·사회단체장과 지역 농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과학영농 기반 확충과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행사는 ▲시설 현황 보고 ▲간판 제막식 ▲테이프 커팅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으며, 과학 영농 기반 구축에 대한 참석자들의 관심과 기대 속에 진행됐다.

과학영농분석실은 농산물 잔류농약과 중금

속·농업용수·토양 성분 등을 정밀 분석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분석 서비스를 통해 농가는 토양 상태와 양분 함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시비 관리와 친환경 농업 실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 군은 시설 운영을 통해 제공되는 체계적이고 정밀한 농산물 안전성 검사와 품질 분석이 로컬푸드 안전성과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로컬푸드 인증제(함평푸드잇)’ 운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과학영농분석실 개소는 지역 농업의 과학화와 먹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과학영농 지원을 확대해 지속 가능한 함평 농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기영규 기자

## 목포해경, 해상 석유 불법유통 특별단속 돌입

목포해양경찰서는 17일 “중증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을 악용한 해상 석유 불법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어업 활동에 사용하도록 공급되는 어업용 면세유를 일반 차량, 중장비, 수상레저기구 등 비어업 용도로 사용하거나 선박용 유류를 빼돌려 세금계산서 없이 유통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목포해경은 관할 파출소 경찰관과

수사 인력을 동원해 주요 항·포구 등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무자료 석유 불법유통과 어업용 면세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선박·어업 종사자께서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의심스러운 석유 거래 상황을 발견할 경우 해양경찰 또는 관계기관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목포해경은 관할 파출소 경찰관과 /목포=정해선 기자